

2024년 2월 11일 통권 제24권 6호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장 26-31절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A Church that shines like the Stars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찬송
Anthem

만유의 주재 (찬 32 장)

기도
Prayer

신종우 전도사

찬양
Praise

은혜 아니면
여호사밧 찬양대

교회소식
Announcement

광고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1 Corinthians) 1장 26-31절

설교
Sermon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임용우 목사

찬양
Hymn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찬 358 장)

축도
Benediction

임용우 목사



2024표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Walk by the Holy Spirit

(갈5:16)

주일예배

오전 09:00 예배

오전 10:45 예배

오전 10:45 Elementary Worship

오전 10:45 Pre/K Worship

오전 10:45 Youth Worship

오전 09:15 EM Worship 1

오전 10:45 EM Worship 2

*현장 예배 오시는 분은 본당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 예배 전후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워싱턴성광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소식

1. 성광이야기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도착

- 본당 입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이영순 전도사(703-732-0114)

2. 50기 새가족반 성경공부 3주차

- 일정: 1월28일~3월10일 (주일) 10시45분 예배후
- 장소: White House

3. 헌금내역서 픽업

- 본당 로비에 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부 PTA

- 일정: 2월11일 (오늘) 10시45분 예배후
- 장소: 어린이홀

5. 건축헌금 약정 확인서 발송

- 확인하시고 문의가 있는 성도께서는 재정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여호사밧 찬양대 모집

- 찬양을 통해 은혜와 기쁨을 함께 하실 대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박광모 안수집사(703-474-9999)

출석 및 헌금 통계

*현장출석

1부	134	EM	106	청년	30
2부	266	Children	83	Youth	73
수요예배	117	토요일예배	140	헌금 총액	\$128,167. ⁹⁵

비전센터 건축 헌금

*1구좌(\$5,000)

약정 목표 금액	600 구좌	현재 약정액	\$4,244,018. ⁷² 849 구좌	건축 헌금액	\$1,961,880. ⁷³ (현재)
----------	--------	--------	--------------------------------------	--------	---------------------------------

교회 셔틀 안내

일반 차량 운행 팀장: 윤석상 안수집사(571-353-5752) 학교 셔틀 운행 팀장: 김용현 장로(714-883-6980)

선교현황 (파송27개국 96명 / 협력 28개국 59명 / 12개 협력단체)

목적	목자	국가	선교사	모임	목적	목자	국가	선교사	모임
힐링	이태수	대만	전야브라함	2/18	생물	진수연	루마니아	박창수	2/11
은혜	홍덕기	일본	배찬식	2/14	비전	문희란	탄자니아	조강식	2/18
하늘	강신호	일본	유정훈	2/11	한나	이정임	루마니아	김유정	2/11
회복	구자현	네팔	박재면	2/18	겨자씨	김용현	케냐	최동훈	2/24
소망	윤태용	캄보디아	정중찬	2/17	영광	이은환	에티오피아	이기진	2/18
동행	장영철	캄보디아	장진기	2/17	코카브	신용식	르완다	이상훈	2/18
방주	문신정	대만	김은우	2/18	쥬빌리	이종근	가나	구승희	2/17
빅토리	하수영	캄보디아	이상민	2/17	실로암	곽은식	콜롬비아	김혜정	2/11
포도나무	강훈규	미국	윤광진	2/17	중보	이상원	에콰도르	이철희	2/17
베네스다	문종광	인도네시아	김형건	2/11	인크라이스트	Jae윤	파라과이	김정훈	2/22
축복	윤세원	네팔	문광진	2/18	바디매오	김범석	페루	김중원	2/11
사인	안진원	인도네시아	함춘환	2/24	새생명	안병주	멕시코	민주식	2/17
라이프	나대형	미얀마	이경중	2/18	오션	윤석상	브라질	박지웅	2/17
태면	송현철	말라위	김백만	2/18	실만한물가	임강호	도미니카	이철영	2/18
임마누엘	박태욱	탄자니아	최장식	2/18	이레	함지하	브라질	우은성	2/18
참빛	서상철	세네갈	최근식	2/11	등대	안용환	에콰도르	이천우	2/18
순종	임상기	탄자니아	윤봉석	2/11	미라클	김승환	볼리비아	황보민	2/17
복음	최병훈	말라위	박세우	2/17	좋은	김영진	에콰도르	장다솔	2/24
마라나타	위주호	남수단	이중호	2/18	오병이어	오택성	브라질	고현욱	2/17
기쁨	도유진	르완다	박준범	2/18	예은	서평강	파나마	고대권	2/18
이새	김현태	우간다	이상철	2/18	청년1	김나영	요르단	이상만	2/11
만나	박광모	인도	김용대	2/17	청년2	이윤형	르완다	최황덕	2/11
부활	홍현철	인도	정정환	3/17	청년3	백종선	루마니아	박정민	2/11
별열	양일도	인도네시아	정영명	2/18	EM1	Jeanie	Cameroon	Mary	주(격주)
지혜	오승원	캄보디아	김영익	2/17	EM2	Jonathan L	Ecuador	Ted	주(격주)
말알	이영희	카자흐스탄	송장현	2/13	EM3	Tom	Indonesia	Jonathan	금(격주)
아름다운	변성희	카자흐스탄	김철진	2/25	EM4	Eric	Senegal	Victorien	월(격주)
백합화	한정금	태국	최승리	2/20	EM5	Stanley	China	James	주(격주)
열매	이정은	몽골	김준태	2/18	EM6	Rachel	Cameroon	Mary	주(격주)
사론	희경Mendez	키르기스스탄	유상길	2/18	EM7	Eunice	Taiwan	Chris	주(격주)
주항기	이영미	태국	허기동	2/25	EM8	Paul	Bolivia	Jeremiah	토(격주)
평화	홍덕기	이스라엘	강태윤	2/11	EM9	Jin Nam	Taiwan	Chris	토(격주)
별빛	신중우	이스라엘	강태윤	3/9	CM1	ChingFang	China	최봉매	토(격주)
와보라	허길선	러시아	김도수	2/11	CM2	ZhangBin	China	박일송	토(격주)

공동기도제목

- 2024년 우리 성도들이 교회 표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와 같이 매사를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 성공비전센터 건축이 좋은 시공업체로 결정되어 공사가 시작 되게 하소서
- 미국 단기선교(2/25~3/6)팀의 준비과정과 현지 사역이 주님의 인도 속에 안전하게 이뤄지게 하소서
- "우리는 동역자입니다"(두란노 출판사) 출간되었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고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책이 되게 하소서

<캄보디아 정중찬/성실 선교사>

- 일천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학교가 되게 하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평일의 사역(유치원, 영어, 한국어, 기타)을 통해 주일 예배와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게 하소서.
- 유치원 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소서

협력단체

IMB, 한국침례해외선교부, 기아대책, SEED선교회, CG선교회, JAMA, KIMNET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하이패밀리,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밀알선교회, 평화나눔공동체

선교지 소식

캄보디아 정중찬/성실 선교사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팜봉짚은 땅고도 슬슬 열매를 맺고, 연중 제일 더운 4월을 향해 가면서 기온도 점점 오르고 있네요. 유치원은 현재 여섯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그림성경동화를 들려주고, 찬양으로 복음과 예배를 가르치고 있지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센터 북편의 트마이 초등학교 사역은 관공서에 의해 불허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학교를 만나게 해 주셨지요. 정기적으로 전도하러 가던 마을인데, 차로 약 30분 정도 거리고, 학교 이름은 쓰만브렌입니다. 공립학교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보충학습을 하는 학원 같은 개념의 사립학교이고요,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에 우호적이라 지난 달에 왔던 단기팀(인천 필그림 선교교회 청소년부)도 함께 방문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진기 선교사님이 그만큼 많이 공을 들여 관계를 만들어왔던 병스나이 초교에서도 마음껏 전도 했네요. 잠시 자리를 비우느라, 장 선교사님이 제게 병스나이 교장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고 갔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장진기 선교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하든지, 그 덕에 이번 팀이 거기서 사역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병스나이 초교는 공립학교라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이었었는데 말이지요. 트마이 초교에서 한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단기팀의 방문을 환영하는 자리였는데, 두 학교 모두 캄보디아의 애국가를 부르더군요. 환영의 의미로 동요나 교가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애국가라...?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었지만 이내, 아, 그 외에 함께 부를 다른 노래가 없구나, 우리는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함께 이야기할 텍스트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의 유산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주일에는 아들, 어른 합쳐서 25명의 현지인과 저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후, 한 성도의 부친이 병원에 입원해서 문병을 갔는데, 호흡이 힘들다고하는 걸로 봐서 폐질환인 것 같은데, 아내와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고 왔지요. 투석도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 팜봉짚에는 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프놈펜에 가야 할 수 있는데, 그 시간과 비용을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식들의 고민만 깊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인데, 갑자기 보내셔서, 다시 가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